

한 번뿐인 삶에서 나답게 살고자 하는 사용자의 주인의식이
디자인 미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TV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TV 스탠드 마운트 구조를 표준화하고 누구나
TV에 어울리는 스탠드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제시하였습니다.
제품 디자인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의 새로운 디자인 시도,
그 시작을 전 세계 디자이너들과 함께했습니다.

스탠드 디자인으로 TV의 개념을 바꾸다.

삼성 QLED TV는 '라이프스타일 TV'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TV는 설치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미적 감각은 살려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입니다. 삼성전자가 표준화한 TV 스탠드는
제품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디자인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TV 스탠드가 실용성과 심미성을 갖고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017년 6월, 삼성전자는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QLED TV 스탠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영국 디자인 전문 매체 Dezeen과 함께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83개국에서 1,200여 개의 참신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공정한 심사 끝에 15개의 작품이 수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다섯 작품이
최종 후보가 되었으며, 1개 작품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TV 공간의 개념을 변화시킬,
QLED TV 스탠드 디자인 공모전 최종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W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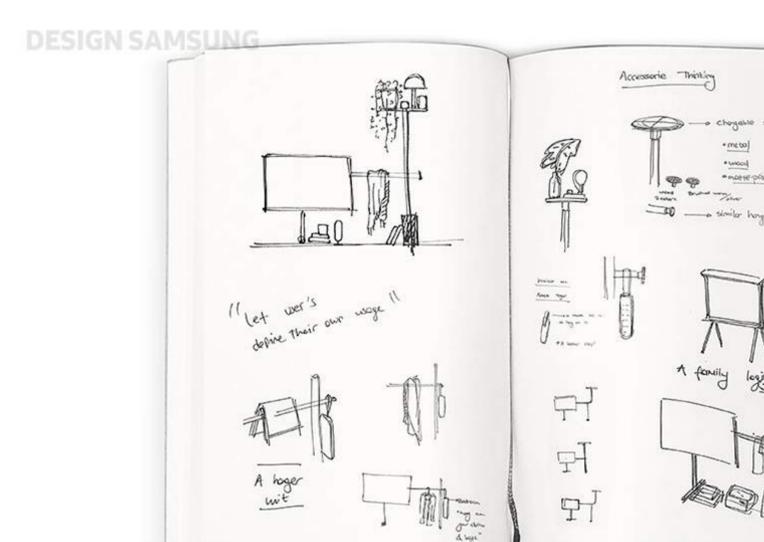


RØR

폴든 데넬리(Fulden Dehneli) / 터키

“ 기술 중심의 시대에서
TV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용하면서도,
스탠드를 통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

원형 선반과 프레임이 결합되어 실용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디자인입니다. 스탠드 영역의 확장으로 TV는 고독하게 우뚝 서 있기 보다,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룹니다. 덴마크어로 연결하는 통로(Tube)를 뜻하는 'Rør'로, 사용자는 TV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순간에도 다양하게 스탠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 선반에 화분을 올려놓거나, 프레임에 옷을 걸쳐 놓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미니멀리즘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만큼, 정직한 소재로 단순한 프레임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4개의 금속 튜브가 수직, 수평으로 연결되며 TV와 선반을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고 인간다움이 있는 스탠드 디자인은 QLED TV를 생활 속 가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킵니다.



Judge Commentary

“ 기술이 라이프스타일과 결합하는 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실용성과 심미성이 균형을 이뤄 TV가 놓이는 공간의 성격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합니다. 하나의 완결된 디자인이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될 수 있는 유연성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



Finalist



Personality

제임스 멜리아(James Melia)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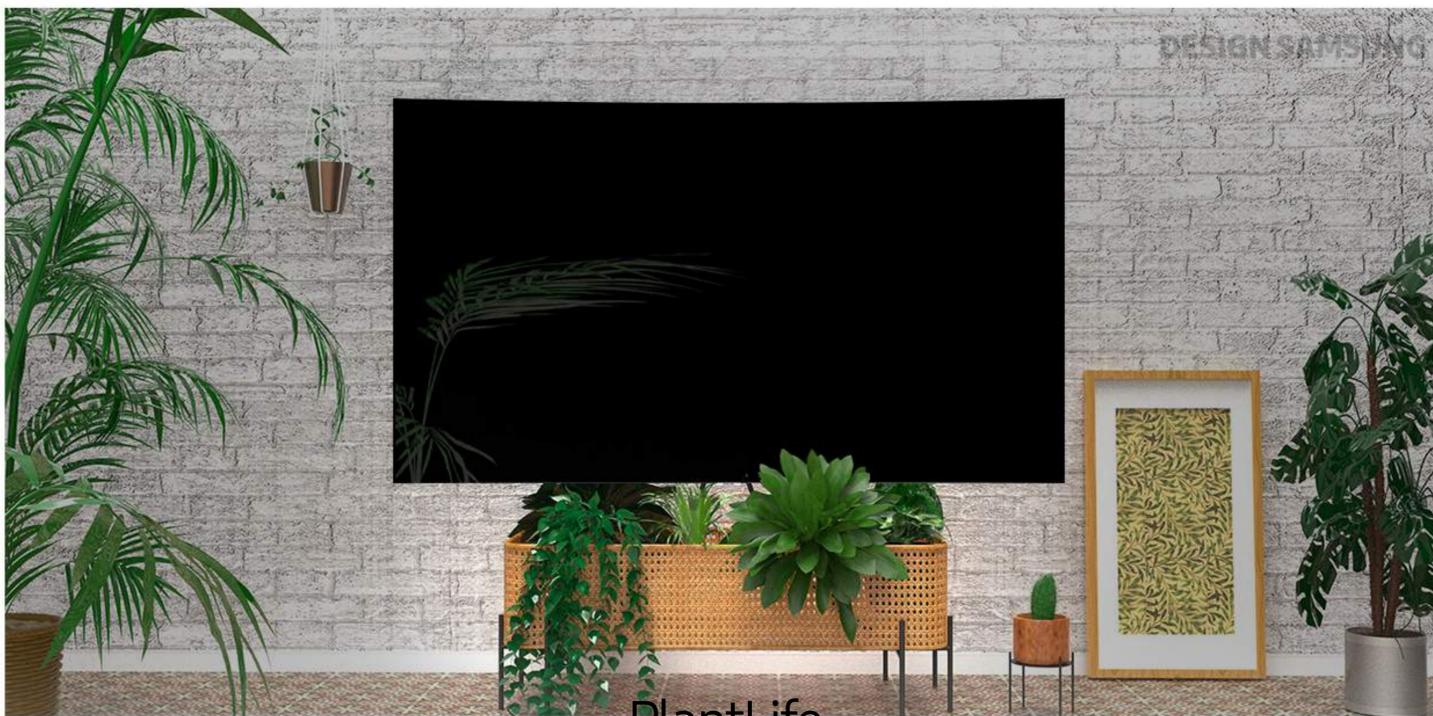
“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만들 수 있고, 각각의 개성이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

심플한 구성을 자랑하는 이 스탠드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브라켓, 기둥, 받침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TV 스탠드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받침뿐만 아니라 사운드 바 기능을 갖춘 오디오 기둥까지 각 요소별 소재와 기능, 그리고 컬러가 다양합니다. 사용자는 취향에 따라 부품을 선택하며 개인의 퍼스널리티(Personality)가 묻어나는 TV 스탠드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함 속 다양함을 표방한 TV 스탠드가 하나의 공간을 무한하게 변화시킵니다.



Judge Commentary

“매우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그 속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테일 측면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에도 충분한 작품입니다.”



PlantLife

마르티나 크라스테프(Martina Krastev) / 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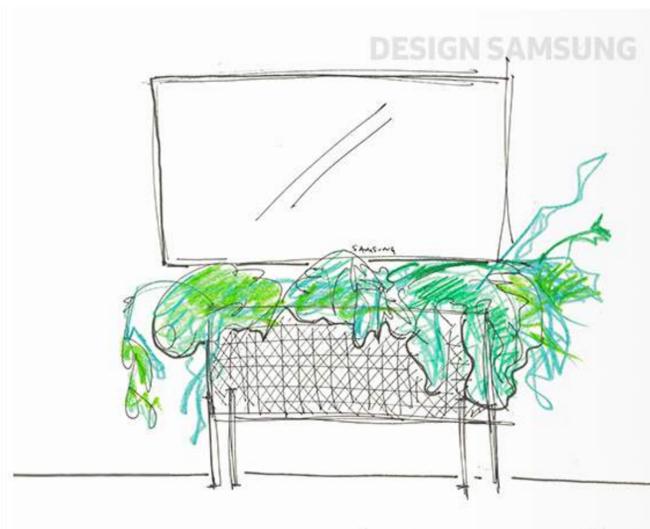
“ 기술 집약적 제품인 TV와
자연의 조화를 담았습니다. ”

TV 아래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아치형 철제 다리가 TV를 받치고, 사각형의 등나무 바구니를 연결합니다. 그 속에 식물과 꽃을 채우면 자연의 싱그러움이 실내공간으로 옮겨 들어옵니다. 혼잡한 도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탠드입니다. 사용자들은 QLED TV의 기능을 즐기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스탠드 하나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인 TV 공간을 디지털 디톡스(detox-technologize)의 영역으로 바꿔 놓습니다.



Judge Commentary

“ 모던하고 딱딱한 느낌의 제품인 TV가 있는 공간에 친근한 자연을 불러 넣는 방식으로, 다른 TV 스탠드 디자인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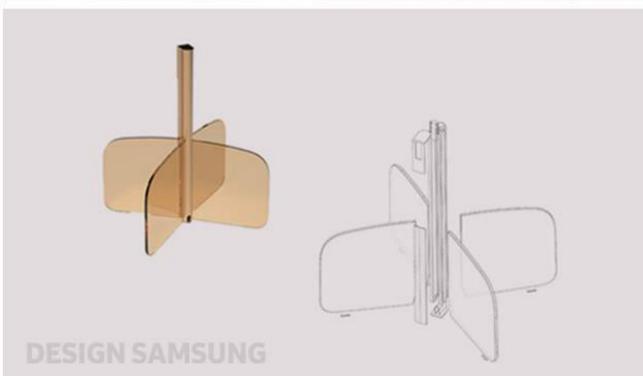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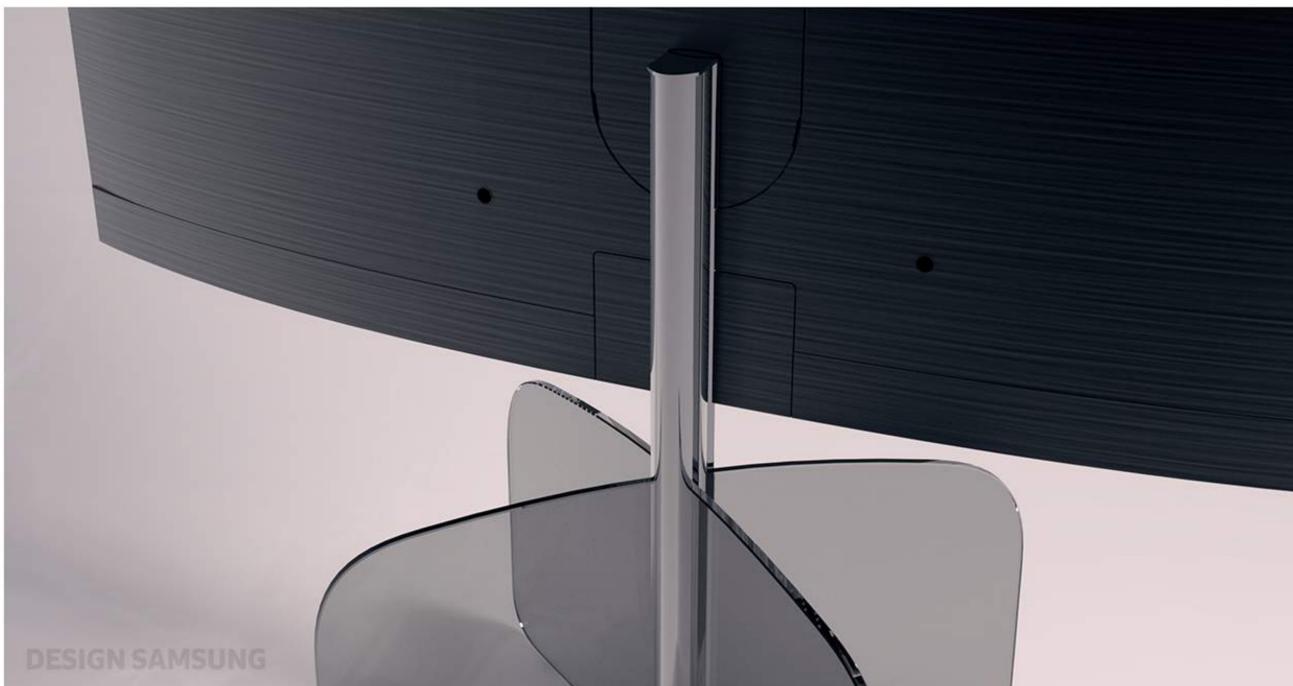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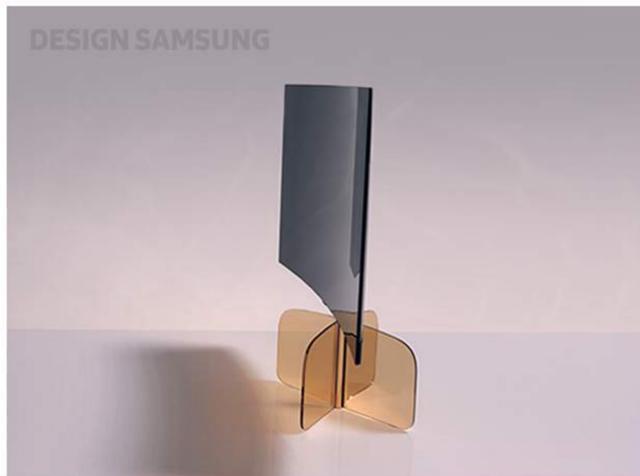


Butterfly

르네 워크(Rene Walk) /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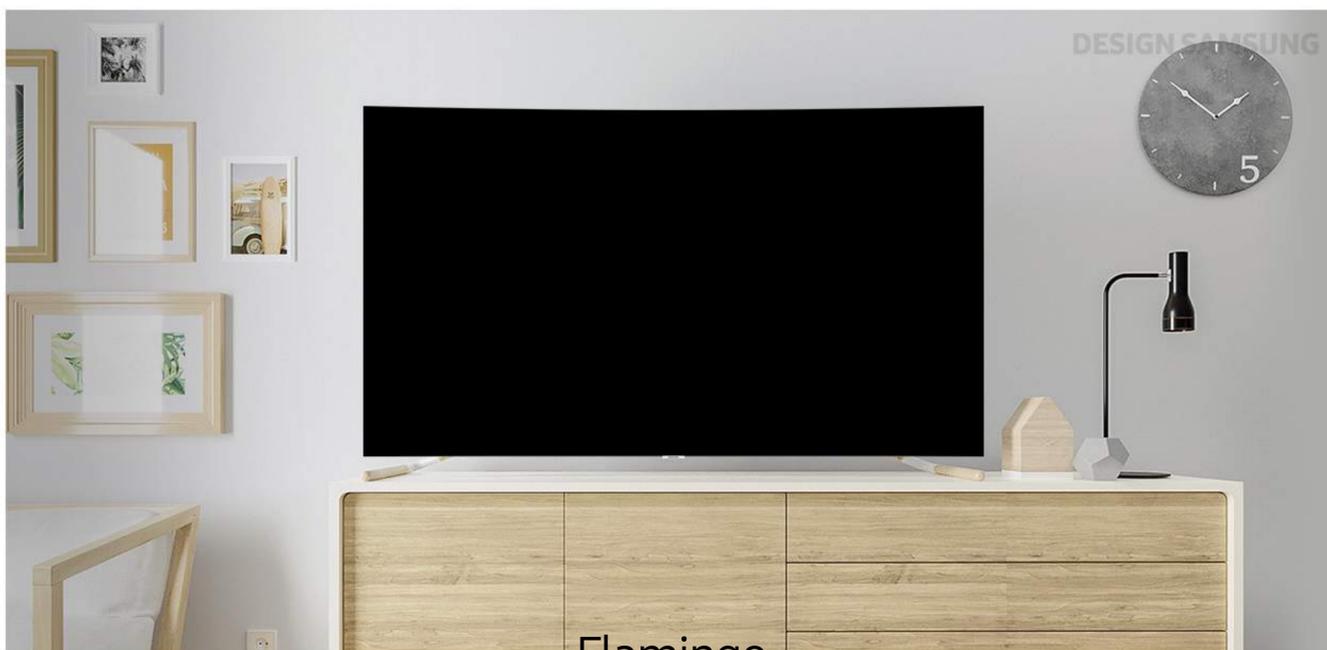
“ 우아한 유리를 사용해 평면 포장 가능하고,
조립이 쉬우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

4개의 유리 패널을 세련된 알루미늄 기둥에 끼우니 멋진 TV 스탠드가 되었습니다. 평평하고 모서리가 둥근 유리 패널들은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을 연상시킵니다. 빛이 반사되어 얇게 칠해진 유리의 색들이 겹치며 아름다운 그림자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케이블은 알루미늄 기둥을 통해 TV와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고급스러운 소재로 간결한 디자인을 구현한 이 스탠드는 프리미엄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시각적 효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분위기로 스탠드와 TV는 모든 공간의 중심이 됩니다.



Judge Commentary

“착색유리’의 소재를 사용하여 개성있는 스타일로
레트로풍의 디자인을 완성한 점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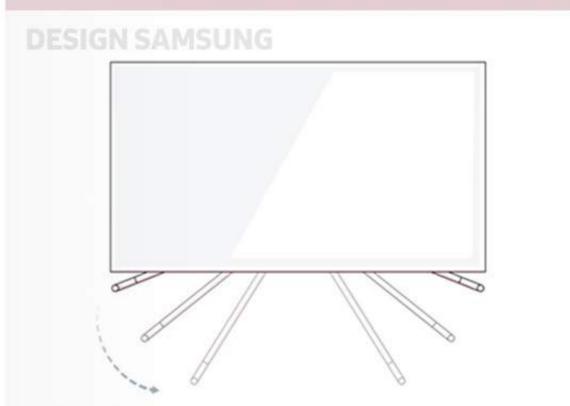


Flamingo

마누엘 페르난제주 루비오(Manuel Fernandez Rubio) / 스페인

“ 두 기둥의 각도를 조절해서 다양한 높이로 만들어, 바닥에 바로 놓거나 하나의 가구처럼 놓아도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

‘플라밍고’는 견고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소재와 심플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디자인입니다. 한 쌍의 얇은 L자 모양의 기둥이 마치 플라밍고의 붉은 다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용자는 양쪽 기둥의 각도를 조절하여 TV를 원하는 높이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연결부위 컬러와 소재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심플한 선으로 그려낸 대칭 스타일은 젊고 합리적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Judge Commentary

“ 한눈에 사로잡히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간단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기본 역학인 ‘대칭’을 섬세하게 활용했다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

Shortlist



Fly

Björn Blisse / 독일



AY!EH!(At Your Eye Height)

Hunjeong Kim / 독일



V Up

Petar Ćosić / 세르비아



Optical Suspension

Marcelo Dantas / 포르투갈



Catch the Wave

Anthony Chieh / 미국



Sail

ALDEN KOH / 싱가포르



Ppalli Ppalli Palitos

Xose Manuel Figueroa / 멕시코



Stratos

Sonny Lim / 독일



Shift

Juozas Brundza / 리투아니아



Growth

Santiago Bautista / 스페인

내가서 있는 공간이 나를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QLED TV 스탠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TV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TV는 더 이상
첨단기술만으로 설명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디자이너의 참신한 시선은
자연의 편안함, 빛과 소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TV 공간으로 끌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라이프스타일로서의 TV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design.samsung.com >